



...우리의 目標...

- 1 在日僑胞의 救靈
- 2 祖国統一의 實現
- 3 韓・日兩國의 和解



地方會를 앞두고

재일교포에게 복음이 선포된 지 어언 60년을 명년인 1968년에 마치하게 되었다. 그간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여러번 수난기를 거쳐왔으나 이역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꾸준히 빛내어왔다. 우리는 지난 60년 우리들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발자취를 회고하며 선배들의 업적을 회상하면서 여러가지 은총에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결음 더 나아가 선교 70주년(1978년)의 회년을 맞이할 때까지 전도계획을 세워 좀더교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더욱 분발하자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지방회와 또는 금년도 총회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전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온 신도는 각자의 신앙부흥에 힘써야 하며 신자는 각자가 다전도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지방의 지방회를 앞두고,

(1) 각현의 한국인 거주상태를 조사하여 개척전도지를 각지방회가 중심이 되어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각교회도 자기교회 교세확장에만 급급하지 말고 개척전도지를 정하고 전도하는 교회로서 새출발하여야 하며 지방회전체가 총력을 기울여 개척전도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2) 각지방중심으로 전도대회를 개최하여 불신자를 위한 특별전도대회를 가지며 각가정에 복음이 침투되도록 규모적이고 조직적인 전도를 하자는 것이다. 지방회별로 총원전도개시를 위하여 전도대회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런 집회를 가질 때에는 상당한 준비를 가지고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60주년 기념이나 70주년을 향한 장기적인 전도계획이든 총회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방회가 중심이 되어 전도운동을 개시하며 지방회내의 교회들이 새로운 각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10개전도계획의 3대목표를 본다면 첫째는 교회에 혁신을 먼저 가져오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데 앞서 먼저 안으로 나자신 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섬기는 중의 자세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둘째번 목표는 동포 사회에 번혁을 일으키며 셋째 세계에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지난날을 반성하며 전진 비약을 위하여 금번 각지방회는 단지 임원선거와 1년간의 보고를 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전도「프랜」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교회전체가 좀더 혁신되어 생생한 공기 밑에서 전도에 힘쓰기 위하여 지방적으로 충분한 토의가 있어 좋은 제안이 총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일에 神奈縣丹沢하우스에서 열렸다. 강사로 이인하목사님이 수고하셨다. 12명의 신학생들은 역사를 굽어지고가는 교회의 사명을 배웠다. 내일의 교회의 일꾼인 자각을 가진 신학생들은 열렬한 기도와 수련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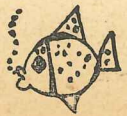
▲ 關西지방신도회하기수양

회는 8월 14, 5양일에 걸쳐서 「세상에 파견된 신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生駒山高原 캠프·사이드에서 개최되었다. 강사로 關西지방 목사님들이 수고하셨다. 출석한 47명의 남녀신도는 1박 2일의 수양회에서 받은 은혜로서 세상에 파견된 신도로서 힘있는 간증과 봉사를 할 결심을 하면서 산을 내려왔다.

韓・日 兩教會宣教協力

대한예수교장로회 총무 유호준목사, 대한기독교장로회 총무 이영민목사, 대한기독교감리회 총무 이병걸목사는 일본기독교단의 초청을 받아 대일하였다. 한국교회대표인 3목사는 일본기독교단의 장鈴木正久목사, 부의장飯清목사, 서기木村知己목사, 세계선교협력위원장大村勇목사, 총무국장佐伯侯목사, 외출판국장 주사회계 20명의 일기독교단측의 대표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東京銀座 크리스찬·센터에서 회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일본교단의 현상과 한국 3교회의 현상보고가 있은 후 양국교회의 인사교류 정보자료의 교환 협력활동 기타에 관

하여 협의한 결과 이상의 내용을 가진 선교협력에 관한 약속문서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 약속서는 양국교단의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행된다. 한일양교회 선교협력에 관하여서 재일 대한기독교총회에서는 다년간의 중개역할을 하여왔다. 따라 이번 회의에는 처음부터 이인하총무가 참석하였으며 약속서교환의 입회인이 되었다. 이번 3대표방일의 답례로서 일본교단측에서 총회의장鈴木正久목사 일행이 9월 하순경에 방한하여서 이번 협력이 더 구체화하는 데 대한 협의를 하리라 한다.



教會消息

● 福岡教會獻堂式

1965년 2월에 교회당과 목사관 신축에 착공한 福岡교회는 총액 1천 3백만원 이상의 공사비로 지금부터 2년전인 1965년 7월 초순에 준공되어 7월 11일 주일부터 입당하여 예배를 보는 중에 있었으나 아직까지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여 헌당식을 거행치 못하고 있던바 수차례 걸친 福岡교회신도들의 정성어린 헌금과 또한 총회내 각교회신도들의 기도와 헌금 또한 불신자들까지도 다액의 헌금이 있어 부채를 청산하고 기쁨의 헌당식을 9월 19일(화) 오전 11시에 거행하기로 되어 福岡교회신도들은 즐거운 중에 있다 한다.

▲ 김형식목사는 독일유학을 마치고 8월 20일 일본에 다시 돌아와서 水島교회에서 계속 시무하게 되었다.

▲ 지난 8월 16, 17, 18일 2박 3일간 서남지방하기수양회가 大分県由布院 山水호텔에서 「기독교인의 사명과 봉사」라는 주제 밑에서 개최되었는데 각지교회에서 다수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강사는 丁仁寿목사였다.

▲ NCC (일본기독교협의회) 방문전도강습회는 8월 22~24

일 2박 3일 御殿場東山荘에서 열렸다. 165명의 교역자와 방문전도하는 신도가 모여서 「집을 서로 지라」는 주제하에서 방문전도자의 길은 고민이 많으나 그러나 무상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배웠다. 앞으로 일본전도에 복음전의 용사되자고 다짐하였다. 우리총회에서는 박명준, 최정수, 김원치, 최창화, 4목사가 참석하였다.

▲ 신학생회는 8월 29~31

蔡 彌 近 著

新約聖書講解

(上卷) 46版 624면
값 700 원

(說教例題300挿入)

推薦의 말

連合神學大學院院長 金正俊 博士

100년이 가까와가는 우리나라 신교역사상에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고 신학교육에 종사한 사람을 꼽는다면 이 「신약성서강해」의 저자인 채필근 목사님이시다. 그가 항상 자기 이름의 『채필하기전』……무엇이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의 육의 생명이 이땅에서 채 필하기전에 그의 많은 지식과 깊은 경건의 체험을 총동원하여 집필한 이 책이야말로 한국신도의 마음속에 이제 이후 繼統적으로 영향을 끼칠 그의 영혼의 교향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待望하던

新約聖書講解가 刊行되다

▲新敎歷史八十年을 넘은 우리敎界에 이제 비로서 우리의 머리에서 우러나오고 우리 손으로 쓰여진講解가 上下卷으로 編集되어 이제 그上卷이 出刊되었다.

▲敎會의敎育으로 60年間을 奉仕한 80을 넘은 老學者가 깊은 信仰의 體驗을 통한 넓은學問과 해박한 지식으로 쓴 이강해야말로 우리의 待望하던 것이다.

▲이강해의 특색은 설교자를 위하여 章마다 중요한 제목을 택한 설교例題300을 삽입한 훌륭한 講壇用本文講解이다.

▲교역자와 설교자는 물론이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聖架에 반드시 蔵置할 良書이다.

▲고급초지를 쓴 46版 정밀한 인쇄에다가 아름답게 裝幀되었다.

상한심령

시 편 51 : 1~7 崔 順 直 (布施教會牧師)

본문에 실려있는 상한심령이란 어떠한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상한심령이란 우리자신들이 자기에 대하여 부족이나 죄를 깊이느끼는때에 가지는심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심령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지않는가 라고 하실것입니다. 즉 형무소에서나 또는 범죄자의속에서..... 그러나 이 상한심령이란것은 인간과의관계에서도 가질수는있으나 특별히 여기에서말하는 하나님의 구하는 상한심령이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지는 심령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않다면 복음이라 말하기 어려울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 양심적 심령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관계에서가지는 부서지고 깨어진심령을 말씀하시는것이라 믿어집니다.

3~4절을보면 『내가주께만 범죄하여 주의목전에 악을 행하였아오나』 라고 하신 말씀만 보아도 잘알수있는 사실 같습니다. 그의죄는 남의유부녀를강간하고 그죄를 덮기위하여 그남편을 전쟁에보내어 죽게한 무서운죄였습니다. (삼하12:1~12)

그런데 그는 이죄를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범죄한사실을 고백하고있다 는것입니다. 아마도 그도 처음에는 보통사람들과같이 타인에게 먼저 전가하여본후 다시본심에 돌아가서 자기부족이나 죄를 뉘우치면서 이세상의 도덕인들과 같이 사람과의관계에서 처리하려고 애썼을것입니다. 또종교적 의식으로 제사번제로 해결할수있다면 드렸을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있어서는 그모든것으로 해결할수 없을뿐아니라 설사해결한다하여도 시원치는 않았을것입니다. 왜!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과의관계에있어서 하나님의사람인내가 왜그런범죄를했을까 라는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인간과의관계를 설사 원만히 해결했다할지라도 하나 남아있는 문제는 자기에게 좋으면 타인의안해라도 강간하고 또 그죄를 가리우기위해서는 죽이기도 예사로하는 이런 되지 못하고 비뚤어진 인간성

이 부패된죄악성이 어디서 나왔으며 또 큰문제였을것입니다. 그는 자기의전적인부패를가지고 성경말씀이 제시한 원죄라는 (주로習性罪面) 죄를 처음 발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5~에보면 『내가 죄악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사실을 보아서도 알수있습니다. 다윗은 비로서 이부패적인원죄적인것 우리들의 양심으로나 이성으로나 어떤것으로도 극복할수없는 죄를 깨닫고 이죄에부닥쳐 여지없이 자기라는것이 깨어지고 부서져 이제는 예수그리스도의공복과 그의구속이 없이는 전혀살수없는 존재라는것을 느꼈을때 비로서 이 상한심령을 가지었을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시편6:6 같이 눈물로 내침상을떡우며 내 요를적시나이다라고 회개하였아옵고 또 시편22:1~21같이 멀리 갈

보리의 십자가를볼수있었고 로마서4:7의 복 있는자의반열에 속하였다고 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죄의 문제를 여러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혹 사회학적인장에서 또는진화론적인장소에서 (무지가 죄를낳게한다고) 혹은 심리학적인것에서 말씀하고 제집니다. 혹자는 우리에게 무슨죄가있는가고 공연히 죄운하여 사람이 되지못하고 노이로제로 만든다고도 합니다. 물론 세상의 법이나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보다깊게 인간의실체적 (實體的) 면에서 인간의죄성의문제는 어찌하시렵니까(막7:21) 어떻게 하나님과의關係에서 자기의실체를 바로 깨달아 상한심령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리나(눅18:13) 사도바울선생도(로마서7:18~20)이 자기속의원죄적인 부패성예부닥쳐 『이자망의몸에서 누

가나를 전제내려』고 깨어진 이심령속에 참되고 진실하고 겸손한 주의일군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해야 이심령을 항상가지고 살수있겠는가 가 문제될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우리는 모두 애원하면서도 원대로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기의 행위속에서 죄와부족을 찾아보고 이 상한심령가지지길바라며 그러나 그것도 바로서면 또 잃어버리니 그때는 좀더깊게 양심의世界에서 찾아뵙고 그속에서도 멈춰지면 하나님 말씀속에서 그속에서도잡히면 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표준에서 언제든지 상한심령을 가지고 사시길바랍니다. 만약 앓아질때는 어떻게될까 점점떨어져 (예수님표준에서→말씀→양심→행위) 큰 망신 하는일 있을것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상태는 없을터이니 이신앙가지고 전진양망.

※ ※

어떤의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할때 그의 연구와배움이 그것으로 종결한다면 그는 훌륭한의사가 되지못할것이다. 신도도 그와마찬가지로 믿음의 끝이없다 한시라도 배움을 중단한다면 하나님을아는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를 알수없는 것이다. ③ 바울은 신도의 희망의 새로운실현을 간구하고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시대는 희망을잃어버린 시대라고할수있다. 현시대가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답다할지라도 성경말씀에 의하면 시대는 어떤목표를향하여 다름질치고 있는고로 모든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世界의 완성이 올것이다. ④ 바울은 하나님의능력의 새로운 실현을 간구하고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능력의증거는 그리스도의부활이다. (20절) 죄가 그 있는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멸하려고했으나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통하여 하나님의능력이 인간의능력을 초월한다는것을 증거하고있다. 인간이 어떠한수단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목적한바를 방해할수없는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모든영역을 정복했다는것을 설명하고있다. 하나님께서 그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승리케하시고 그를높이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하시고 (빌2:9~11) 만물을다스리시며 교회의 머리로세우셨다. 여기에말하는 정사권세 능력 주관하는자들은 모두 천사의이름들이다. 그것은 당시 소아시아지방에 천사중배가 심하였기 때문이다. —계속—

信徒를為한 <에베소> 書研究

(6)

尹 宗 銀

西宮教會牧師

(2) 교회를위한 바울의 기도(와송영(1:17~23))

① 우리들은 이 구절에서 바울이 친히 사랑하는교회를위하여 기도하고있는것을 볼수있다.

1 첫째로 바울은 「지혜의정신」을 간구하고있다. 바울이 여기에 사용하고있는 「지혜」라는 말은 여러가지 뜻을 지니고있다. 즉 분별 영지(英知)·리지(理知)·지성(知性)·총명(總明)·현명(賢明)등의뜻이다. 그러나 이모든말의 근본적뜻은 하나님의깊은뜻을 깨닫는지혜이다. 바울은 교회를위하여 기도하고있다. 교회의 세상에 존재하는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로서 세상에보냄을받은 자명을받은 지식을 더욱깊이 깨닫게하기위함이다. 신도들에게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것은 생각하는인간이 되어야한다. 세상에일어나고있는 일들과 모든사건들을 꿰뚫고보는 통찰력이 있어야한

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사태를 예누리없이 볼수있는 통찰력을 가질때만이 사회를 영도할수 있을것이다. 2 둘째로 신도에게필요한것은 가르치는성무이다. 여기에 성경을 가르치는일과 배우는일이있다. 우리의신앙을 뒷받침해주는것은 성경뿐이다. 성경은 인간의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구속의사실이 기록되어있다. 그러므로 신도의가장중요한 과업의하나인 성경을 가르치는일과 배우는일이다. 그러나 주의해야할것은 우리가 성경을 곡해(曲解)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것은 정확하게 알게하기위하여 「지혜와啓示의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3 셋째로 신도에게필요한것 하나님의일치의뜻을 재조정해야한다. 오늘날교회가 일치를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각기 분열상태에있다. 인간의모임은 일치의

구조를 이룩할수없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최저에 있어서 일치점을 발견하도록 기도하고있다.

② 바울은 하나님의종성한啓示와지식을 간구하고있다. 왜냐하면 신도는 지식과은혜안에서 자라나고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직업에종사하는사람은 그의 목적하는 연구를 중단할수없다. 예를들어 말한다면



할 말

역사는 사실자체가 역사다. 역사의기록은 역사가아니다. 역사관도 역사는아니다. 역사비판도 역사일수없다. 역사는 사실자체이다. 그리스도는역사이다. 그리스도밖에 그역사를 알리없다. 인간은역사다. 그사실을 인간자체밖에알수없다. 어머니의눈물은역사다. 눈물의역사는 어머니밖에모른다. 민족은역사다. 민족자체밖에는그민족을모른다. 모르는것을 어떻게 비판하라. 사실 자체는

엄숙하다. 불가침하다. 사실은 꾸밀수없고 더할수없고 뺄수없다. 사실은 사실뿐이다. 역사는 사실 자체란것은 역사를더할수없고 뺄수없고 꾸밀수없고 바꿀수없다. 역사처럼 엄숙한것은 없다. 하나님은 역사시다. 살아계신다는것은 역사란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만아시지 우리로서는 모르는것이다. 그자체밖에모르는 역사를 그자체와같이 온전하게 아는분이있다. 하나님이다. 인간은 인간답게하라는것이요 모르는인이 되라는것이다. 인간자체를 자각하라는것이다. 엄숙한 눈물의역사를 비판하지 말고 존경하라는것이다. (전영복)

青年問題研究会発題

— 1 —

青年運動の今日

黄義生

青年運動の現状の把握は過去の流れを捕え、その流れの中で如何なる位置を占めるかを把握すべきである。すでに「昨日」についての発題者が言及されたことではあるが、私なりに過去の流れを一言で捕えてみれば、青年運動が進むべき方向を横断してようやく自分の足で立つことができるところまで成長してきたと言えるであろう。それは正常な歩みをなしてきたと評価できる。例えば、私達は青年会運動が連合会であつた時代と全国協議会となつている現在も比較して見るとよい。先ず組織の点から言つても「前者は単なる寄合い世帯の感を免れず、従つて全国的有機的活動が殆んど不可能であつたが今日ではただ単に修養会のみならず一年間の活動方針を全国的有機的に遂行して行くことができる段階に迄到っている。メンバーも前者が数十名であつたが今日では四百名を数えている。運動理念も前者では会員の信仰の確立、会員間の親睦、伝道という閉鎖的なものであつたが、現在では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の今ここに於ける使命は何かという、内面的でありながらも開放的な健全な理念に到達している。こう言つた点から考えて見ると、青年運動の弱体化を言う人もいるが、むしろ正常な成長をしてきたと評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だが同時に、今迄かなり正常な成長をとげてきたのであるが、現時点に立つて真実に考えなければ今後健全な歩みを害するであろう危険性も見抜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のは、もしもその危険性を克服して健全な歩みをしないとすれば内的には青年達が失望して青年運動から、或は教会から大きく脱落して行くであろうし、外的には社会が教会の無氣力と孤立主義に決定的な不信を投げつけるに到るであろうということである。従つて我々は現在の青年運動を健全なものに育ててゆくことを真実に考えて行かねばならない。そこで私は現在の青年運動がより健全なものになるために必要と思われる二、三のことを指摘してみようと思う。

I) 青年運動は全教会的な業とし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い。青年運動は青年だけの孤立的運動ではない。勿論青年は青年としての独自性があり独自の組織、独自のプログラム、独自の活動理念があるであろう。だがそれはどこまでも全教会的な業に参加することとに於いて存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決して青年運動の主体性が否定されるものではなくて、各機関をキリストの肢体として捕える時そうならざるを得ない。青年運動がともすれば自分達の能力だけでやつて行けるという自信から、他との関りを失つた孤立的、従つて独善的なものにならないように心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次の三つに目と耳を開かねばならないだろう。a) エキュメンカル・ムーブメント（世界の教会が主から与えられた使命をどのようにして一致して果しうるかを不断に問いつづけているエキュメンカル・ムーブメントの流れの中にわれわれの青年運動を位置づけること）。II) 指導理念の明確化。我々の青年運動が抽象論ではなく今ここに於ける具体的現実的なものであるためには我々が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であることを再認識する必要がある我々はキリスト者であるが故に我々の運動がどこまでも隣人に仕えて行くものでなければならず、在日韓国人として隣人を在日同胞の中に発見し日本に住んでいるが故に日本の社会にあつても良き市民として生きることが求められる要するに我々の青年運動の指導理念は「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として苦難の中にある同胞に仕えて行くと共に、日本の社会にあつても良き市民としての務めを果たして行く人間像を形成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場合同胞に仕えて行くことは決して民族主義的なものではなくて、どこまでも隣人概念から把握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我々の運動が民族エゴイズムに随つて行くことを防ぐためには、日本の社会の中に存在する部落問題等にも関心を待つことが必要ではなからうか。

III) 主事の設置。青年運動が今日の段階にまで到ると、青年達がサイド・ワークの範囲内で青年運動を展開することは困難になつてくる（サイド

・ワークの範囲を起えて尙く時、自分の生活に決定的な支障をきたしてディレンマに陥る）。例えば充実した青年運動を展開するためには、常に運動に神学的方向付けをすることが不可欠であるし、問題が生じた時その処理に専念したり、各個青年会の実態把握をしたりすることなどは決して片手間にできることではなく、相当訓練された専任者、それが主事という名であれ、

在日韓国キリスト教会の問題点に問う（その五）

神戸教会牧師 金瓊燦

今日の在日大韓基督教会の問題点の中での一つのビジョンを取上げて見るならそれは数年前から発足した平信徒運動であると思う。この運動は長年の間教会の中で論じて来た問題ではあるが、ここによくその生声を上げるようになったのは、在日大韓基督教会がこの日本に於いてその使命と目的をフルに発揮して福音が世の塩となり光となることを切実に願っている一つの現われだと思ふ。私は教役者一人として神に感謝せざるを得ない。しかし私はいましばらくこの平信徒運動が一体如何なる性格を持つて進むべきかを論じて見たいのである。

今日の教会が為さねばならないことは多々あるが、宣教とその運動は最も力を入れて進むべきことであり、平信徒の動員及びその訓練、そして聖霊による指導等は断然な研究を要する問題であろう。特に平信徒運動を考えて見るとこの運動は本質的に教会の本質とは何等区別がないのである。しかし教会の信徒の中には、教会と平信徒の雙方の仇によつて主の教会が発展して行くのだと主張する人があるそして又更に真の教会はただ神様のみ知ることでありそこには常に信ずる相互間の兄弟愛の実践が必要であると言うのである。神学だけではだめでむしろ実践が必要だとしてその運動を強調するようになり、やがてそれがグループ運動として現われて来るのである神学のみ主張は神学主義や教義主義に陥おそれがある

幹事という名であれ専任者が必要となつてくる。最近になつてそのことがちよいちよい話題になつてはいるが、予算の関係や時期尚早意見によつて日の目も見えていない。だが現在主事を設置して青年運動を推し進めることが将来それなくしてする青年運動よりも遙かに張力充実したものになることを確信するが故に、このことを是非実現させて行きたい。

以上二、三の点を思いつくまに列挙してみたが、これらのことが充分に配慮され、青年運動の内実となつて行くなれば、将来を実りあるものとしてくれるであろう。

グループ運動というものは一種の平信徒の伝道運動でありこの世が教会に対して関心を失つて行けば行く程この運動は益々その頭を持ち上げてきて我々即平信徒達の手によつて人々を教会に導かねばならないと言うようになる。そして聖書の講義は唯一の伝道方法でない主張するだろう。更に一歩進んでグループ運動はもつと実行的な行き方で伝道へのつながりを持つてしていると宣伝するであろう教役者は個人的に人々に接しながら牧会をするのであるが、個人的な牧会に十分な時間をかけ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どうしても平信徒の補助が必要であり、個人的な問題解決は牧師よりも平信徒の方が適当だと言うのである。例えば牧師がその説教の中で人間の諸問題について説教する場合、個々の問題について具体的に語ることは困難な面がある。ところがグループ運動では簡単に処理できると言つて先ずその諸問題に関して使命を説き、次にその働の結果を語ることでことによつて問題解決を求めようとするのである。即信仰経験の証言や、又更生せしめられた人々の生活の証しを中心に宣教がなされるとしてこの運動の必要性を重要視するのである。現代は伝道を求めているということは、何人も異論はないだろう。しかし説教が必要だ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説教は唯一なる宣教ではないと言うのである。平信徒が説教はできないが、証をなし得るのでグループ運動はこれに

重点を置いて、信徒を奨励しながらこれを一種の伝道方法とするのである。故に個々の教会は教会外に向つて伝道方向と教会内に向つての信徒強化の方向とが相互に補足して始めてその使命を全うするのだと主張するのが彼等の言い分である。ところが我々は神に対しても人間に対しても責任を負っているものであるが勿論厳密には責任的ではないが、究極的にはそれを全うすることはできない。我々の責任遂行には限界があり、我々はその限界を乗り越え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ある。グループ運動は實際的に又原理的にこれを乗り越えようとする面があることを忘れてはなるまい。原理的に見て信徒の教会での奉仕は即この奉仕とは礼拝を含めた奉仕を意味するが、完全な奉仕で奉仕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ある。又完全に全うすることは不可能なのである。奉仕ただ熱心に奉仕すべきであつて、その奉仕の結果を追求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る。何故ならそれは全く神の領域の問題であり、神の主権にまかすべきであり我々がとやかく言々する問題ではないそして又奉仕の熱情のみではその熱情が周囲の人々の態度によつて種々と影響され易いのであるから熱情のみを見てこうだあだと言つてはならないと思う。教会の教義や説教や牧会とは本質上或種の運動によつてできたものでない。ところがグループ運動は宣教的であるので、どうしても目標が人間に向けられ人間に信頼されるか否かを顧慮しながら福音宣教のことを考えるようになるのである。福音は申すまでもなく 神中心で宣教されるものであり、決して人間の思想や意志その他人間的な要素によつて左右されない筈である。我々信仰は神様が何を私達に命令し何処へ導くとも如何に私達を助けようともすべてを神に委ねることが信仰本来の姿勢ではないか。或る誤つたグループ運動の中には人間性と道徳とに於いてキリスト教的使命を新しく理解し直すことを考えているが我々は教会の使命を新しくすることはできないはずであるグループ運動は一種の世俗主義に流れて行く可能性を十分に持つていて運動なので我々平信徒はその本来の性格と目的とを 100%に発揮できるように祈りつづけて行かねばならない。

(つづく)



聖書

しもべの働き

マルコ 10:41~45

1, しもべという言葉は、今日あまりにも美化されて用いられているから、もとの意味が薄れているようである。(ロマ1:1、ガラテア1:1) これは丁度死刑囚のつく十字架が主イエスの贖罪のわざによって栄光のしるし(ルカ23:21~23)となったような感じがこのしもべという言葉にもあるもともと、しもべは奴隷、召し使いといった意味の言葉である。(歴代上21:3、行10:7) 奴隷のよく使われる時代に書かれた旧約にはこのしもべという話が実に八百回も用いられている。(創15:2、エレミ2:14) 私たちが使うしもべとは段ちがいの差がある。今日私たちがしもべの働きについて考える時のしもべは、やはり旧約や初代教会の時の奴隷という話に強調点をおいて用いるべきである(エペソ6:5、ピレモン1:16)。奴隷は主人にとっては、動産、不動産のような財産や物のように主人に属する所有物であり、しかも主人の命令には絶対服従するのであった(ルカ17:10。) 神のしもべである私たちも神の所有物であり(ヨハネ17:23)、神に属するのであるから神に絶対に服従すべきである(ヨハネ14:31)。

2, 奴隷は主人に仕えるのである。そのように私たちも、神に仕えるのである。神に仕

える具体的な姿は多くの人にその人の僕として忠実に仕えることである。いくら美化されて用いられても、しもべは奴隷としての絶対服従の精神をもって仕えることである。主イエスは神は今に至るまで働き給うので自分も僕くと言われた(ヨハネ5:17)。私たちも神と共に常に働くべきであり又、その働くこと自体が主イエスにとっては食物であった(ヨハネ4:34)と同じように私たちも生命の糧を得るために僕くのではなく僕くこと自体が糧であり生命である(第2テサロニケ3:10)。

3, 主イエスは弟子達に対して、多くの人の僕として仕えることを命じると同時に、自分も生命を多くの人の救い

のためにささげると言われた(ピリピ2:9)。生命を救うには生命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神のしもべである主イエスがこのようなから、私達も毎日自分を捨てて毎日自分の十字架を負って主イエスに従うことこそしもべの働きである(ルカ9:23、マルコ8:35)。自分をささげる者は神との和解のつとめを果された主イエスにならい、平和を得るように自分の身をもって僕かねばならない(マタイ5:9)。自己の利益を求める者は多くの人の為に奴隷として僕くことはできない。しもべの働きは具体的には万人奴隷としての自覚と、主にならう者として僕くことである。

(金元治)



九月のカレンダー

修養会、夏期学校を無事に終えてほっとする間もなく、それぞれの集会の反省をさせられる今日の日々である。代表委員の崔君など、深夜に電話をよこしてバスがどうだったとかこうだったと修養会のあれこれを市外電話をものともせず不安をこめて語りよこすのである運営の責任者の一人としてさもありなんと思う、

心から代表委員会及び運営委員の方々に、御苦労さん、君達が心配する以上に、修養会は大いなる前進を見せし、そして、その実も大きい。堺教会の青年と語り合っている今年養会修、本当によかったと心にしみじみと感ずる本当に御苦労さん、そして来年のためにさあ立案準備を急ごう、よりよき集会を目指し

て。

× × × ×

九月の声を聞く様になるとそれぞれの地方会では、一年間の行事活動報告及び、新年度の計画立案決定すべく、地方会たるものが開かれる。例年になれば、例は例の如くと言うことで終ることになるが今年は別な準備がなければならぬと思う。聞くところによれば、来年は宣教六〇周年記念の年だという。そして、そのために準備委員会たるものが総会の内に組織され、標語を始め、諸集会が立案され机上計画は着々と進められているかの様である。さて、目出度いことであり、六〇年間の主の導きを感謝しつつ、新しい年に私共も、心を新しくして主の業に協力前進しなければならぬまい。しかし、何人かの総会に直接関係を持っているエライさん方の案が地

方会教会にもつと早く伝達されるべきではなかろうか総てが最終的に決定して、さあこれがその案で、方針でしかじかでは、何人も働き様がないと思うが如何。教職者修養会の時に、最終案でない最終案を見せられ、共に討論もしたのであるが、教会には今だに何の通知もない。教会は決して牧師一人のものでない。全信徒役員一人一人に充分説明して理解をいただいてこそ教会の協力を得ることが出来る全教会の協力を得る為には、総会の時にその案を示し決定するのであっては「時おとし」と言うことにはならないだろうか。いうまでもなく、全総会的な行事であるから地方会の討論は必要ないと言われるかも知れぬが、大切な行事であればあるほどにもっと早くからそれぞれの教会及び婦人会青年会に相談すべきである

あるとき、シモンと云う人がイエス様を自分の家にまねいて、ごちそしました。シモンがイエス様をまねいたのは、イエス様の悪いところをみつけて、おとし入れるためなのです。ですから、心からイエス様をお迎えした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イエス様はシモンの家で、多くの人達と一緒に食事をして、お話をしておられました。すると一人の女の人がそっと入って来ました。その人は、町の人達から相手にされない、だらしない生活をしている人でした。その女の人は、香油の入っている石膏(せっこう)のつ

心を知って、こんなお話をなさいました。『あるところに二人のお金に困っている人がいました。この二人は主人にお金をかりました。一人は五百萬圓、もう一人は五十萬圓です。ところが、ふたりともお金を返すことが出来ませんでした。主人はかわいそうなので、二人ともゆるしてやりました。さて、五十萬圓ゆるしてもらった人と、五百萬圓ゆるしてもらった人と、どちらが多く主人を愛するでしょう。』そしてイエス様はシモンに『この女の人はよくない人だったかもしれない。でも神様の愛を喜んで心のかぎり

： 児・童・説・教 :

ゆるし

ルカ 7:36~50

ばをもっていました。女の人はなきながらイエス様の足を涙でぬらし、髪の毛でぬぐって、香りの高い香油を注ぎました。女の人は、さめざめとないで自分の罪を心からゆるしていただくとう、イエス様のところにひざまずいたのです。いい香りが部屋中にたちこめました。イエス様はだまって見っていました。すると、シモンやそこに居た人達は心の中で云いました。『この女の人がどんなに悪い人か、イエス様にはわからないのだろうか、イエス様がえらい人なら、こんな女の女の人なんか追い出してしまおうのが当たり前なのに。』 イエス様は、みんなの

神様を愛しているのです。』と、おさとしになりました。神様の愛を示して下さるイエス様に高い香油を惜しげもなく注いでもてなした女の人こそ、本当に神様を愛し、罪がゆるされたことを知った人です。私達も、夏の間だれがちだった心をひきしめ、イエス様のゆるしをいただいて、聖書を學び、シモンのようなつめたいい心ではなく、この女人のように、イエス様を愛し、神様を信頼しながら、お互に助け合いつつ、教会生活にはげみましょう。

(教育主事 姜貞子)

在日大韓基督教總會
地方会 開催通告

聖恩中 貴教会 日益隆盛하심과 평강하심을 삼가 기도하오며 六七年度지방회를
下記와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교회전체가 기도로 협력하여주시며 각부서 책임
소자 정기일내로 報告書を 제출하시기 요망하나이다

四地方会長 白

記

○ 関東地方会

一、時日 一九六七年九月一九日
午前一〇時

一、場所 舟橋教会

○ 中部地方会

一、時日 一九六七年九月一四日
午前九時三〇分

一、場所 岐阜教会

○ 関西地方会

一、時日 一九六七年九月二六日
午前一〇時

一、場所 武庫川教会

○ 西南地方会

一、時日 一九六七年九月一九日
午後二時

一、場所 福岡教会